

#### 1. 회의 개요

가. 주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나. 일시: 2011년 4월 22일 (금) 07:00~09:00

다. 장소: 서울, 롯데호텔 36층 피콕 스위트룸(Peacock Suite Room)

#### 2. 주 제: “2011 한국의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 목표 및 과제”

#### 3. 프로그램

- 사회: 채 욱 KIEP 원장(KOPEC 회장)

o 07:00 - 07:30 조찬환담

o 07:30 - 07:40 개회사 및 소개

o 07:40 - 08:00 발제

- 이시형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

o 08:00 - 08:55 자유토론

o 08:55 - 09:00 폐회사

#### 4. 회의 주요 내용

□ 2011년 11월 미국에서 개최 될 APEC 정상회의를 대비하여 그 내용에 대한 이해 및 우리나라의 과제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은 금년 APEC 의장국인 미국이 APEC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지에 대해 이해한 것에 대해 발표를 하였으며 그와 관련된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2011년 APEC 주요 Agenda로는 ①아태지역 경제통합 강화 및 확대, ②녹색성장 촉진, ③규제협력 및 수렴이 있다. 각각에 대해 상세히 토론하였고, 미국은 실질적인 역내 개방의 성과를 올리려고 하며 한국은 이러한 미국의 입장을 잘 기회로 잘 활용하려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 한국 측은 의장국인 미국에 힘을 실어주면서, 서로의 이익이 부합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임을 밝혔으며, APEC 역내 소규모 FTA나 경제통합 문제 관련하여 추진 중인 것들의 진전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이루어질 것이다. 특히, 한국이 참가하지 않은 TPP를 모체로 하여 FTAAP이 추진될 가능성을 감안하여, TPP 협상 동향에 관심을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 한국의 규제개혁 및 녹색성장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으며 한국이 상대적으로 앞서나가고 있는 제도들을 APEC 역내 국가들 간 공유하는 것도 필요하며, 한국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리라 예상한다. APEC의 TILF뿐만 아니라 ECOTECH(경제기술협력)도 매우 중요하며 APEC이 나아가야 하는 길을 한국이 주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DDA의 상황과 전망에 관한 논의가 있었고, 이와 관련된 기업 측의 입장도 논의되었다. 또한 한미 FTA 비준이 이루어진 후면 한국이 적극적으로 TPP 논의에 참여할 수 있게 되리라 예상된다.